

# 도 국가예산 확보 막바지 강행군

### 정부예산안 국회제출일 임박... 김일재 행정부지사 등 도 지휘부 총출동

전북도가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100대국정과제·지역공약·지방비 매칭 해소 등 도 주요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2018년 국가예산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일인 9월 1일이 임박한 가운데 기재부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중요시점에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김일재 행정부지사, 진홍정 부지사, 실국장 등 도 지휘부 등이 총출동하여 기재부, 국회 등 릴레이 국가예산 활동을 펼치고 있다.

먼저 김일재 행정부지사가 14일 기

재부를 방문하여 기재부 주요예산 심의관 및 쟁점사업 소관 과장 등을 차례로 만나 과소 미반영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2018년 국가예산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

예산심의관 및 쟁점 소관과장 대상 지휘부 활동 주요건의 사업으로 새만금 SOC의 조기 구축을 위해 2020년 이전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의 동시준공을 위한 예산 4,910억원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국가사업으로 추진결정된 '국

립지력권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에 대한 국립화 추진 및 내년도 예산 61억원을 건의했다.

동학특별법 근거로 지난 2년간 국비로 지원해오다 현재 지방비 50% 부담을 요구하며 예산이 미반영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조성사업'의 국가 주도 추진 및 '18년 예산 200억원 건의와 전북·충남·세종의 광역 연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선도사업인 11개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165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설명했다.

아울러 진홍 정 부지사는 새만금

SOC 핵심구축 6개 사업 예산 반영을 위한 지역 정치권 협조를 위해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 안호영 예결위원 등을 14일 방문, 새만금 SOC 구축에 소요되는 국비 5,600억원이 기재부 단계에서 대폭 증액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 차원의 특별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지속 구축하고, 국회 단계에서도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5년 연속 6조원대 국가예산 확보 달성을 위해 적극 활동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14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비쿠 콘그레스 컨벤션에서 열린 제41차 세계스카우트총회 개회식에 송하진도지사와 조현 외교부 제2차관 및 유치단이 대한민국 홍보를 위해 스마트캠버리를 소개하며 2023 세계캠버리 새만금 유치활동을 갖고 있다.

## “세계캠버리 대회, 반드시 새만금에서” | 아제르바이잔 현지서 유치활동 혼신 참가국 대표단 '공향맞이' 등 구슬땀

2023세계캠버리 새만금 유치를 위한 전라북도유치단이 아제르바이잔 현지에서 회원국들을 상대로 막판 득표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계총회가 열리는 아제르바이잔으로 지난 11일 출국한 송하진 도지사와 황현 도의회 의장 등 전북유치단은 12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에 도착하자마자 호텔로 향하지 않고 속속 입국하는 각국 대표단을 공항에서 직접 맞이하며 2023세계캠버리

가 대한민국 새만금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며 유치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송 지사 등 전북유치단은 이른날인 13일(현지시간)에는 현지에 대한민국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각 지역별 키맨 마칭을 가진 뒤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전개하며 막바지 득표활동을 했다.

전북유치단은 특히 총회 회의장에

서 아랍 회원국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바로 회의장으로 찾아가 새만금의 장점과 PT에서 내세울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고 유치 지지를 호소했다.

전북유치단은 또 14일 단 한 명의 투표권자라도 더 만나기 위해 각국 홍보부스를 방문, 주요 인사들에게 15일 오후 3시에 개최될 코리아 리셉션에 꼭 방문해 줄 것을 당부하고 한식과 전통놀이, 전통공연 등이 펼쳐지는 코리아 홍보부스를 찾아주

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같은 날(15일) 밤에 진행되는 '국제 의 밤' 행사에서는 대표단이 모두 스카우트 단복 대신 스카우트 참시자인 베이든 포엠크링이 그려진 유치 티셔츠로 갈아입고,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한민국 전라북도 새만금에 2023세계캠버리가 유치되어야 하는 문화적 당위성을 내세우는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김진성 기자

## 내년 지방선거 UCC 공모전

### 9월 10일까지 중고등학생·대학생 응모 가능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익산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선거가 좋아요'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지난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선거에 대한 (미래) 유권자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UCC(동영상)을 홍보에 활용함으로써 민주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모두가 화합 소통하는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관심 있는 도내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은 누구나 9월 10일(일)까지 선거와 관련된 자유 주제로 공모전에 응모할 수 있으며 광고, 뉴스, 애니메

이션, 웹드라마, 패러디 등 형식과 규격에 제한없이 (미래)유권자가 느끼고 생각하는 선거에 대한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자유롭게 제작하여 참가신청서와 함께 iksmec@naver.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9월 20일(수)에 수상작을 발표하며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등 총 9명에게는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상과 총 50여만 원의 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된다.

수상작은 한국선거방송(ETV)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 자동차내장재 가공 전문가 양성 박차

### 도내 거주 미취업자 대상 친환경부품소재 교육생 모집

전북도와 ECO융합첨삭연구원(익산시 소재)은 2017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부품소재 전문인력양성사업(자동차내장재가공 전문인력양성)의 교육생 15명을 오는 8월 21일(월)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자동차 시트봉제에 관심 있는 도내 거주 19세이상 미취업자로, 교육은 8월 25일부터 11월 13일까지 10주간 진행되며 수강료와 재료비를 포함하여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고 교육

훈련수당으로 1인당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자동차내장재가공 전문인력양성사업은 자동차시트봉제 인력을 양성하여 관련 업체에 취업연계를 지원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기업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을 창출하고 이들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올해 내 성주 사드 임시배치 완료할 것”

송영무 국방부장관(사진)은 14일 올해 안에 사드 임시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장관은 답변 과정에서 사드 최종 배치를 의미하는 듯한 대답을 내놨다가 임시 배치로 선회하기도 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 참석해 “올해 안에 사드 배치를 할 수 있느냐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한시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시간보다는 빨리 될 것”이라

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이 재차 ‘금년 안에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는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겠느냐’고 묻자 송 장관은 “네”라고 답하며 사실상 사드 최종 배치를 암시했다.

그러나 송 장관은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드 최종 배치’를 의미하는 듯한 그의 답변에 문제를 제기하자, “최종 배치가 아니라 임시 배치”라며 발언의 수위를 낮췄다.

송 장관은 “4개 발사대를 빠른 시한에 배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 내 임시 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최종적인 것은 종합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가능하리다”고 했다. /뉴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